

지역 소식통



김제시, 올해 보건진료소 성과대회 '최우수기관상'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지난 7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2023년 보건진료소 성과대회에서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2023년도 보건복지부에서 개최하는 보건진료소 성과대회는 보건진료소의 일차의료 강화하고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우수사례 발굴하여 전국으로 확산시키고자 매년 보건복지부가 개최하는 대회이다.

이번 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화동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보건진료소장 안은선)는 '물린 약상자 클리어한 응급상황 대응'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우수한 의료 서비스 제공과 자발적인 혁신 노력을 인정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최우수기관 현판도 수여 받았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공취팔쥐 도서관 혁신도시 이전기관 소통

완주군립 공취팔쥐도서관이 전북혁신도시 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과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이전기관들과 소통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12일 완주군은 최근 공취팔쥐도서관에서 혁신도시 이전기관 도서관협의회 관계자들과 내년도 주민참여 프로그램과 협력 사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농촌진흥청,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10여 개 이전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공유와 긴밀한 소통으로 협력네트워크를 다지고 있다. 공취팔쥐도서관은 2만 9,000여 혁신도시 주민들에게 특색있는 프로그램 제공과 도서 시스템 혁신으로 거점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함께하는 과학문화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폐기물 종합대책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김제시, 실용·효율적인 처리 최적화 방안 제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2일 깨끗한 도시 조성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폐기물 종합대책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보고회에는 유관기관의 폐기물 분야 전문위원과 관계 부서장, 용역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업 수행 결과를 듣고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급증하는 폐기물과 무단 투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

번 용역에서는 생활, 영농 폐기물 발생량 현황을 예측하고 수집, 운반, 처리 체계를 검토하여 김제시 특성에 맞는 적합한 폐기물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다.

최종 보고 내용은 △상위 계획 검토와 정책 동향 분석 △폐기물 관리 현황 및 전망 △폐기물 관리 및 순환시스템 종합분석 △국내·외 선진사례 조사 및 적용 △주민 및 수거원 인식 조사 △폐기물 관리 및 순환시스템 최

적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시는 용역을 통해 타 시군 선진사업인 무단투기 감시반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 배출요일제도 일본 신주쿠구의 배출 방법 등을 참고하여 다양한 언어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추진하는 등 성과를 가졌다.

이찬준 부시장은 "김제시 폐기물 종합 대책에 있어 시민 인식 전환과 폐기물 처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사항인데 여러 방안 등을 제시해 준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게 용역 결과를 잘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필리핀 계절근로자 30명 입국 환영식

지역 20여 농가와 매칭

완주군이 농어촌의 부족한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이고 있다.

12일 완주군은 필리핀 계절근로자 30명의 입국 환영식을 열고, 지역 20여 농가와 매칭했다.

전날인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들은 도착 직후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각종 검사를 마쳤다.

이후에는 상관리포트에서 △법무부 조기적응교육 △보이스피싱 예방, 생활교육(완주경찰서)을 받았다.

이번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지난 9월 군이 필리핀 마나일을 방문해 직접 선발한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내년 4월까지 농가에서 제공한 숙소에 머무르며 시설채소 및 딸기 수확 등의 일손을 돕게 된다.

환영식에서는 근로자들의 조기 적응과 원활한 언어소통 지원을 위해 결혼 이민자 8명(필리핀6, 베트남2)을 계절



12일 완주군은 필리핀 계절근로자 30명의 입국 환영식을 열고, 지역 20여 농가와 매칭했다.

근로자 명예(통역)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또한, 완주군 가족센터는 추운 겨울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근로자들을 위해 기부받은 겨울옷 2벌씩을

지원했다. 센터는 계절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동안 인권 침해 및 무단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역 및 고충 상담관리를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 내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전년 대비 409명 늘어

완주군이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완주시니어클럽, 사)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삼례읍·봉동읍·용진읍·이서면행정복지센터 총 6개소에서 사업을 진행한다.

올해 사업 참여 인원은 3,4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409명이 늘어났다. 모집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며, 다만

완주시니어클럽은 15일까지다.

모집은 4개 유형에서 이뤄진다. △자원순환 서포터즈, 공공업무시설지원봉사 등 공익활동형 △경로당 급식 도우미, 시니어 가스안전관리원 등 사회서비스형 △김·두부 제조판매사업단, 팔죽전문점 운영사업 등 시장형 △구직을 원하는 어르신과 기업을 연계하는 취업알선형이다.

신청자격은 완주군 거주자로, 공익활동의 경우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사회서비스형은 65세 이상(단,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 시장형 및 취업

알선형은 60세 이상이다.

월 급여로 공익활동형(월 30시간)은 29만 원, 사회서비스형(월 60시간)은 63만 4,000원이다. 시장형은 하루 최대 8시간 근무하며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된다. 노인일자리 참여 희망자는 해당 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미정 사회복지과장은 "어르신들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경험과 재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확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에 이웃돕기성금 기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12일 ㈜아이오토와 ㈜티엠뱅크 특장기술에서 각 500만원을 기탁했다.

김제, '희망2024 나눔캠페인' 온도 상승

아이오토 500만원·티엠뱅크특장기술 500만원 기탁

연말 김제시(시장 정성주)에 이웃돕기성금 기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12일 ㈜아이오토(대표 김영석)와 ㈜티엠뱅크특장기술(대표 최태근)에서 각 500만원을 기탁하여 희망2024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아이오토(대표 김영석)는 2018년 3월에 설립하여 군산시 동장산2길 6에서 무인 모빌리티(서빙로봇) 생산과 자동차용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기업이며 (주)티엠뱅크특장기술(대표 최태근)은 2019년 3월에 설립하여 백산면 자유무역1길 49에서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기업이다.

최태근 대표는 "물가상승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 취약계층에 관심을 갖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가정에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김제시치매안심센터, 2024년 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

김제시(시장 정성주) 치매안심센터는 지역 대표로 구성된 20명의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들과 함께 지난 12일 2023년 치매안심마을 운영 결과 공유 및 2024년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갈 수 있으며, 일반 주민들도 치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김제시는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 월성동, 2020년 김산동 주공 1차 아파트를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2023년부터는 더욱 촘촘한 질 관리를 위하여 중앙치매센터 승인을 받아 신흥동, 김산동을 우수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올해 운영성과는 △치매예방프로젝

램(원예, 공예, 노래, 레크리에이션 수업 등) 운영 △지역특화 요리조리교실(나만의 건강밥상만들기, 뇌에좋은 결과 류 오란다 만들기 체험) 운영 △추석맞이 한가위 한마당 행사 연계 치매 인식개선 홍보 및 캠페인 실시 등이 있다.

이번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 주민들을 위한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찾아가는 치매예방프로그램 확대 운영 △치매안심가맹점 신규 발굴 및 지정△실종 치매노인 지원 서비스 제공 등 치매안전망 구축 등 지역 특성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김제시를 만들기 위해 치매안심마을 사업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